

보도시점 2026. 9. 15.(화) 13:00
(2026. 9. 16.(수) 조간)

배포 2026. 9. 15.(화) 09:00

AI를 눈앞에, 'AI-인글라스 포럼' 개최

- 총 70여 개 국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 과기정통부 지원, 'AI-인글라스 기술개발 사업(ETRI, '26~'30년, 450억원)'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국내 AI글래스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인글라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글래스는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통해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시선과 대화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AI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AI 서비스 플랫폼이자 스마트폰을 이을 폼팩터(Form Factor)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AI-인글라스 포럼'은 향후 성장할 AI글래스 시장을 대비하여 국내 산·학·연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관련하여 동 포럼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박세웅, 이하 'ETRI')이 수행하는 '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개발' 사업('26~'30년, 450억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는 AI클래스 관련 완제품, 부품,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총 7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AI 클래스 생태계 확산 방안을 위한 논의에 머리를 맞대었다.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IG, 페네시아, 버넥트, 레티널, 사피엔반도체, SKT, KT 등

KAIST 우운택 교수, 딥파인 김현배 대표, 사피엔반도체 이명희 대표의 기조 강연과 ETRI의 연구개발 전략 발제 이후에는 대한민국 AI클래스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AI클래스 시장의 빠른 확산과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 사례 구축을 통해 HW, SW, 콘텐츠와 서비스를 잇는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AI클래스는 AI를 활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AI 클래스 관련 기술개발부터 완제품과 서비스 실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앞으로 더욱 성장할 AI 클래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콘텐츠과	책임자	과 장	설재진 (044-202-6350)
		담당자	사무관	김세림 (044-202-6359)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